

매절계약 시, 저작권 양도 명확해야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콘텐츠 업계에서 '매절계약(賣切契約)'은 자주 문제가 되는 계약 형태 중 하나다. 이는 출판사 등이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가지는 형태를 말한다. 나중에 해당 저작물을 통해 커다란 수익이 발생한 때에는 저작자 측에서 불공정 계약 등의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판사 등은 초기 투자의 위험을 부담하므로(즉, 해당 저작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저작자는 지급받은 금액을 계속 보유하므로) 불공정한 조건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저작권법에 비춰보면 '저작권양도계약'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에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됐다.

이 사안은 원고가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하

고 음악저작물을 작성해 소외 회사에게 공급한 것이었는데, 음원공급계약에는 '매절'이란 음원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가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든 정의 규정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여 매절된 음원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음악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했다. 그리고 1심 및 2심은 모두 위 음원공급계약이 저작권양도계약이라고 해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권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문언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법리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위 음원공급계약은 저작권양도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단의 근거로, ▲위 음원공급계약에는 소외 회사가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돼 있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에 저작권양도의 양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매절'은 저작물의 출판계약에서 그 출판대가를 발행 부수에 관계없이 미리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는 배제하기로 하는 출판대가의 지급방식을 일컫는 것으로도 사용되는데, 위 음원공급계약에서 '매절'이 저작권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위 음원공급계약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음악저작물을 리듬게임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데, 소외 회사가 반드시 저작권양도를 양도받아야만 이러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들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저작권양도의 자체는 허용되지만 그에 따른 효과(저작권의 저작권 상실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 실무자로서는 계약 과정에서 '저작권양도'를 의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그 계약의 문언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바른

금모으기 나라는 왜 성과급에 매달리게 됐나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들은 금반지와 목걸이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산다는 믿음이 있었다. 손해를 감수하면 서도 고이 간직해오던 금붙이들을 내놓았다. 지금 돌아보면 낯설 정도로 집단적이다.

기업 현상도 다르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 연구원들은 도면을 펼쳐놓고 반세 회의를 했고, 1995년에는 불량 휴대폰 15만 대를 공장 마당에서 불태웠다. 회사가 무너지면 내 삶도 흔들린다고 믿던 시대였다.

그 편이 합리적이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임금 은 가파르게 상승했다. 회사가 성장하면 월급이 올랐고, 월급이 오르면 집을 살 수 있었다. 함께 성장

한다는 말은 구호가 아니라 경험이었다. 과거 세대는 가난을 두려워했지만 지금 세대는 탈락을 두려워한다. 이 차이는 세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조와 자산 환경의 변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46주 연속 올랐고, 2025년 누적 상승률은 8.25%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송파구는 20% 이상 뛰었다. 예전엔 월급이 집값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집값이 월급을 앞질러 달아난다. 1990년대 직장인은 야근 끝에 내 집 마련을 상상했지만 지금 직장인은 야근 끝에 전세 계약 연장을 걱정한다.

노동만으로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회사를 공동체보다 현금 창출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부동산이 어려워지자 주식시장으로 향했지만, 주식 역시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었다. 문이 하나씩 닫힐 때마다 사람들은 남은 문으로 몰렸다. 그 마지막 문 가운데 하

나가 성과급이다. 예전의 성과급이 "잘했다"는 보상이었다면, 지금의 성과급은 자산시장 진입을 위한 종잣돈이다. 반도체 호황기 성과급 규모가 알려질 때마다 부동산 커뮤니티와 호가가 들썩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는 그 돈으로 서울 입성 계산을 두드리고, 누군가는 같은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평생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삼성이어서 특별한 것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드러났을 뿐이다. 주거·교육·노후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자산 격차를 노동소득으로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한국의 노사 갈등이 해외보다 격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금모으기 운동 시절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애국심의 크기가 아니다. 함께 버티면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의 존재 여부다. 지금은 그 믿음이 합리적이 아닌 사회가 됐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7일 (음 4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60년생을 자중함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환경의 변화는 불필요합니다. 84년생 좋은 흐름의 시기를 알고 나이가면 막힘이 없었습니다.



49년생 매우 잘 풀려 참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1년생 하늘과 땅이 다같이 흰합니다. 73년생 곧 귀인이 저절로 찾아 옵니다. 85년생 남도 보고 뽕도 따졌으니 잘 풀려 나가겠습니다.



50년생 마음이 더욱 초조해집니다. 62년생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고 꼭 방식하지 마세요. 74년생 사업을 유지하면서 축소나 확장은 하지 마세요. 86년생 안좋은 습관은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51년생 사방이 아주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63년생 쉽게 이루어지기는 끝내 어렵습니다. 75년생 노력을 했으나 결실은 만족치도 못합니다. 87년생 후유증이 발병할 조짐이 있습니다.



52년생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64년생 조금은 다소 어려운 처지에 있겠습니다. 76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립니다. 88년생 애정운이 매우 좋습니다.



53년생 아끼지 말고 새롭게 힘껏 다시 도전하세요. 65년생 이성을 동반하는 즐겁고 가벼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77년생 여자의 말에 차분히 귀를 기울이세요. 89년생 조금함을 버리세요.



54년생 좋은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66년생 늘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세요. 78년생 친구의 유혹 등을 주의하세요. 90년생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해야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55년생 당분간 구설수에 시달리게 됩니다. 67년생 노력한 만큼 성과가 쉽게 나지 않는 운입니다. 79년생 노력하지만 큰 보람없이 무너집니다. 91년생 마음에 수심만 더욱 가득하다 하겠습니다.



56년생 안정지 못하고 몹시 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68년생 기대만 컸을 뿐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80년생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세요. 92년생 시작이 반입니다.



57년생 동쪽에서 양심 있는 참 좋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69년생 사업이 처차 조금씩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93년생 곧 반가운 소식이 오게 됩니다.



58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70년생 귀하를 해하려는 자들의 나쁜 음모가 진행중입니다. 82년생 늘 건전한 사고를 지니도록 하세요. 94년생 당장은 업종은 꼭 바꾸지 마세요.



59년생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1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크게 잃게 됩니다. 83년생 병이 찾아옵니다. 95년생 희망하는 직종을 찾았으나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김상회의四季 트럼프의 군인 사랑

정치 지도자는 말과 행동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타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에게는 군인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늘 보여줬다. 그는 취임 이후에 강한 군대가 강한 미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현하곤 했다. 군인을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으로 본 것이다. 군인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언어는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군인을 영웅이라고 부르거나 그들이 나라를 위해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지 열거한다. 일부에서는 이런 표현을 정치적으로 언급하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지속해서 언급한다는 건 실제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는 전쟁 지역에 있는 병사들, 부상 당한 참전용사들 그리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군인들 같은 다양한 상황의 군인들을 배려하지 않고 챙기고 위로한다. 트럼프의 군인 사랑은 집권 초기부터 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최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발표하며 군을 챙겼다. 장비 현대화와 군 장비의 복지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국방 예산 확대는 평소 군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던 그의 메시지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미국 연방정부 섀다운 사태 속에서도 군인에 대한 급여는 계속 지급하라고 지시하는 일도 있었다. 그의 군인에 대한 응원은 군 기지를 방문하거나 장병들과의 직접적인 만남 행사가 있을 때, 트럼프는 단순한 행사로 끝내지 않고 중요한 격려의 메시지를 빠지지 않고 전한다. 트럼프의 정책과 발언은 군인을 나라의 중심축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6			3	8	5			
	3	1						
3		5		6	9	7		
		4		9		6		
9			1					5
	5		8		2			
	7	1	2		8			9
				1	2			
3	2	9						4

5	4	9		6	3			
	7			4				
	5	2	7				8	6
3	9					8		
	6						1	
		7					5	9
7	2				6	9	4	
			9					2
		8	5		6	3	4	

9	7	1	2	8	6	3	5	4
2	6	3	1	9	5	4	8	7
6	5	8	9	2	1	3	7	4
4	1	7	2	8	6	9	5	3
8	9	6	5	4	3	2	1	7
7	2	9	8	1	5	6	4	3
5	3	4	6	7	8	9	2	1
1	8	5	3	2	4	7	6	9
3	4	2	1	9	8	7	6	5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1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2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